

# 국제스포츠계 通 實勢들과 通할까

박상하 2011년 대구세계육상경기대회 유치위원회 상임고문(62·사진)이 9일 국제육상경기연맹 초청으로 모나코를 방문한다.

박 고문의 이번 국제육상경기연맹 본부가 있는 모나코 방문은 오는 22일과 23일 대구에서 있을 예정인 대구세계육상대회 유치를 가능할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실사를 10여일 앞둔 시점이어서 그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다.

박 고문의 이번 모나코 방문은 박 고문과 15년 전부터 친분이 있는 국제육상경

뤼였다는 분석이다.

이번 방문에서 박 고문의 역할은 대구 세계육상대회 유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피에르 와이스 사무총장과 실사단장인 비겔(Helmut Bigel) 부회장에게 유치 희망 도시인 대구의 입장을 전달하는 일.

대구세계육상대회 유치위에서 박 고문을 모나코로 급파한 이유는 박 고문이 그동안 국제 스포츠 계에서 국제적인 스포츠 인사들과 다져온 인맥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것이고 박 고문 또한 유치위의 뜻에 따라 선뜻 수락했고 평소 친분이 있는

## 실사 앞두고 사무총장과의 만남은 의미 커 후원사문제, 유치후 해결로 실마리 풀겠다

기연맹 사무총장인 피에르 와이스(Pierre Weiss)의 초청으로 이뤄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고문의 이번 방문일정은 11일 모나코에서 피에르 와이스(Pierre Weiss) 사무총장 초청 만찬에 이어 12일에는 국제육상경기연맹 라민 디악(Lamine Diack) 회장 만찬, 13일경에는 독일에서 실사단장으로 내정된 국제연맹 비겔(Helmut Bigel) 부회장과도 면담하는 등의 바쁜 일정으로 잡혀있다.

특히 세계육상대회 유치 희망도시 관계자가 실사를 앞두고 국제육상경기연맹을 방문하는 일은 이례적으로 박 고문의 방문 성사 자체가 박 고문이 그동안 국제 스포츠계에서 다져놓은 든든한 반석으로 이

국제육상연맹 사무총장과의 전문회신을 통해 방문을 성사시키게 됐다.

“상황이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는 느낌”이라고 말하는 박 고문은 “먼저 피에르 와이스 사무총장의 마음을 대구 쪽으로 급선회시키는 것과 실사단장인 비겔 부회장에게 우리나라 및 대구가 처해있는 현실을 어느만큼 설득력 있게 설명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고문은 또 “가장 걸림돌이 될 후원사 문제는 국제육상연맹이 대구에 무엇을 요구하는지 잘 알고 있어 유치 후 후원사 문제를 거론하는 쪽으로 실마리를 풀어볼 방침”이라고 말해 박 고문의 이번 모나코 방문 결과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류기찬기자 ryukc@idaegu.com

